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다



1 개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初] 목판에 새긴[雕] 대장경이라는 의미이다. 고려 시대에 불교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문화였다. 고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송과 거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조대장경의 제작 경위를 적은 글에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부처의 힘을 빌고자 제작하였다고 적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초조대장경 제작은 축적된 학문적 역량과 고도로 발달한 목판 인쇄술을 바탕으로 문화국으로서 고려의 위상을 과시하는 상징이었다.

2 동아시아의 불교 이해와 대장경 제작

대장경이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여러 전적들을 한자 문화권에서 집대성하여 목판에 새겨낸 것이다. 불교는 1세기 무렵 실크로드를 통해 동아시아로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뿐, 인도의 이질적이고 생소한 개념들과 심도 있고 고차원적 철학 체계로서의 불교를 이해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불교의 전적은 기본적으로 붓다의 말씀을 담은 경(經), 승단의 규율을 담은 율(律), 불교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석을 담은 론(論)의 삼장(三藏)으로 구분된다. 인도에서는 경·율·론 세 가지 내용을 패엽

이라는 나뭇잎에 새겨 바구니에 각각 구분하여 담아두었는데, 이 때문에 경·율·론을 트리피타카(Tripitaka), 즉 ‘세 개의 바구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개념이 동아시아에서 ‘삼장(三藏)’이라는 한자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이 삼장을 포함한 불교의 지식 체계를 담은 다양한 서적들은 수 세기에 걸쳐 인도에서 중앙아시아 등을 통해 동아시아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인도어, 중앙아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을 거치게 되었다.

한자로 옮겨진 한역경전(漢譯經典)이 처음 출현한 2세기 이래, 수많은 승려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초기의 거칠고 오류가 많은 번역은 차차 새롭게 다듬어져 갔다. 한자 문화권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많은 개념과 논리들은 동아시아적 개념과 사고 위에 더욱 정밀한 한문으로 다듬어져 갔다. 이에 따라 초기의 오역이 점차로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사상 체계를 이해한 동아시아의 수많은 승려 지식인들이 불경(佛經)에 대한 자세한 주석서를 직접 쓰기도 하였다. 불교에 대한 한자 문화권의 이러한 이해 과정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서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당(唐) 시기를 지나면서 불교는 더 이상 인도에서 들어온 이질적 사상이 아닌 동아시아의 전통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10세기 들어 송(宋)은 축적된 문화적 역량과 발달된 인쇄술을 바탕으로 북송 태조의 명령 하에 당시까지의 불교 전적을 총 집대성하여 최초의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971년부터 977년까지 판각하였는데 개보(開寶)년간에 시작하였다 하여 개보장(開寶藏)이라 한다. 완성된 대장경은 태평흥국사에 인경원(印經院)을 설치하고 983년부터 인쇄를 하였다. 이렇게 개보장을 종이에 찍어낸 개보장 인경본(印經本)은 991년 고려에도 한 부 전해졌다.

3 초조대장경의 판각과 그 의미

고려 태조 왕건은 후대의 왕들에게 남긴 훈요10조 [관련사료](#)의 첫 조항에서, 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님이 지켜주시는데 힘입어야 한다며 불교를 강조하였다. 이에 북송으로부터 대장경을 전해 받은 고려는 큰 자극을 받았다. 상당한 수준으로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던 고려에서는 개보장이 전해진 직후 직접 대장경을 제작하려는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11세기에 점차적으로 제작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초조대장경은 개보장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대장경이다.

그런데 이 무렵, 동북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도모하던 거란은 10세기 말부터 고려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011년(현종 2)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開京)이 점령당하고 왕이 남쪽으로 피난 가 나주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사료](#) 이규보(李奎報)가 1237년(고종 24)에 지은 「대장각판군신기 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 [관련사료](#)에는 고려에서 처음으로 대장경을 판각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맨 처음 대장경을 만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옛날에 현종 2년에 거란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침략해오자 현종 임금께서는 남쪽으로 피난하시고 거란군은 수도인 송악성(松岳城)

에 주둔하여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 임금께서 여러 신하와 함께 위없는 큰 서원을 내어 대장경을 판각하기로 맹세하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대장경을 새기고자 임금과 신하가 함께 발원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찌 그때 거란군만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 몽골군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러 부처님과 천신들께서 보살펴주시는 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즉, 이규보는 거란의 침입을 맞이한 고려가 대장경 판각을 통해 민심을 결집하며 부처님의 가호 속에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대장경을 새긴다는 것은 고려가 불교를 깊이 숭상함을 드러내어 여러 부처님의 위호를 입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이었다.

불교가 널리 믿어지는 시대에 불교 전적을 총망라한 대장경이라는 큰 보배를 갖는다는 것은 거란과 전쟁 중에 불교국가로서 고려의 우위를 내세우는 고도의 전략이기도 하였다. 대장경은 북송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후 고려에서 다음으로 조성하였으며, 거란은 고려보다 늦게 판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전쟁 중인 고려가 신속하게 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문을 읽고 쓰는 학문적 역량이 높고 인쇄술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북송에서 들어온 개보장을 복각(復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각이라는 것은 인쇄된 종이를 목판 위에 얹고 그대로 다시 새겨내는 것을 말한다.

고려에서 대장경을 판각하여 경판(經版)을 직접 갖게 되었다는 것은, 책이 귀하던 시기에 지식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불경 유통량의 비약적 증대를 가져왔다. 대장경판 제작 이전에 불경을 얻는 방식은 책을 직접 베껴 쓰거나 소규모로 판각하는 정도였으며, 국내에 없거나 필요한 책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의 불교 전적을 집대성한 대장경을 직접 새겨 경판을 가지고 있게 된 후에는 필요할 때 이를 종이에 찍어내면 되니 이전에 사경하여 몇 권 베끼는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한 번 새긴 경판은 제작 초기 단계부터 가공과 건조에 공을 들이므로 보관만 잘 하면 내구성 및 보존성이 매우 높다. 팔만대장경으로 잘 알려진 해인사의 재조대장경판(再雕大藏經版)의 경우 조성된 지 80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인쇄가 가능할 정도인 것을 보면 그 내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장경판을 갖는다는 것은 불교적 지식의 총체를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할 때 전체 대장경을 혹은 필요한 책을 얼마든지 인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책을 구하러 중국에 가거나 한 권 씩 베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갖는 것이다.

초조대장경을 조성한 고려에서는 불경을 구하는 어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적어졌을 뿐 아니라 전국의 큰 사찰들은 초조대장경 전체를 인쇄한 인경본을 소장하여 학인(學人)들이 책을 구해 보는 수고도 크게 줄게 되었다. 『송사(宋史)』 고려전에 인구 210만에 백성 셋 중 하나는 승(僧)이라고 할 만큼 불교적 저변이 두터웠던 고려에서, 대장경판을 직접 새겨 이전에 비해 다양한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 심화와 학문적 성장으로 직결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자료

10세기 말 북송의 개보장 제작이 고려에 준 자극은 거란의 침입을 계기로 초조대장경 제작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난 극복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고려사』회의 불교적 지식 심화와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어지는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義天) 관련사료의 교장(敎藏) 조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초조대장경 판각으로 불교 경전을 충분히 소유하게 된 고려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불경에 대한 역대 주석서들까지 집대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문종의 왕자로서 출가하여 후에 국사(國師)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의천은, 직접 송 유학길에 올라 중국 전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중요한 불교 주석서들을 회귀본까지 빠짐없이 수집하여 고려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문헌들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널리 읽히기 위하여 목판으로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일명 속장경(續藏經)으로도 불리는 ‘교장’이다. 대장경에 이은 교장의 조성은 오로지 고려만이 이룩한 업적으로, 이후 송과 거란, 일본 등지로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11세기 고려의 초조대장경 조성은 거란의 침입을 슬기롭게 극복해간 고려인의 문화적 역량과 동아시아 불교학의 선두에 서려는 학문적 수준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었다.

4 초조대장경판의 소실과 현존 인경본

안타깝게도 초조대장경판은 모두 불타버려 현재 남아있지 않다. 초조대장경의 소실에 대한 기록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과 『고려사』에 전한다. 이규보는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서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 역시 없어졌습니다. 아아! 여러 해의 공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통탄하였으며 『고려사』에는 “현종 때의 판본은 임진년(1232) 몽골 병사가 불태웠다” 관련사료고 기록하고 있다. 초조대장경을 새긴 판목은 개경에 보관하다가 어느 시기엔가 부인사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는데 1232년 몽골의 침입 당시 몽골군이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고려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곧바로 이를 다시 새겨 재조대장경을 조성하였다. 이것이 현재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은 13세기 초 판목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인경본은 전체가 남아있지 않으며 잔존량도 많지 않다. 초조대장경 인경본은 국내의 성암고서박물관, 호림박물관, 호암미술관 및 개인과 일본 교토의 남선사(南禪寺), 대마도의 대마역사자료관 등에 2,600여 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1970년대까지는 초조대장경이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비장(秘藏)되어온 일본 남선사 초조대장경이 소개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초조대장경 제작이라는 방대한 지식사업을 송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13세기 몽골의 침입 때 다시 제작한 재조대장경의 판목을 전질 보존하고 있다. 특히 초조대장경 인경본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대장경을 제작하던 당시 불교 전적의 현황을 보여주며, 재조대장경판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 판목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초조대장경의 제작은 당시 최고의 사상체계이자 학문이던 불교 전적을 집대성한 사업으로, 한문으로 된 불교 철학서를 이해하고 쓰고 새길 수 있는 높은 지식수준, 목판 인쇄술이라는 과학 기술, 거란의 침입

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대한 지식 사업을 수행하고 완성한 고려인의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